

아홉 낱말로 꿰고 잇는 영문법 첫 책

노베이스 영문법

지은이 정성봉

퍼넌곳 제이앤유아카데미

노베이스 영문법

아홉 낱말로 꿰고 잇는 영문법 첫 책 · 본책

초판 1쇄 발행	[발행일]
지은이	정성봉
펴낸이	정성봉
펴낸곳	제이앤유아카데미
기획·편집	코드유니버스 · 한땀한땀
출판등록	356-2025-000052
주소	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836
전화	010-2782-0745
전자우편	code_of_english@naver.com

© 정성봉, 2026

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.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제이앤유아카데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.

본문 예문은 기출에서 가져오지 않고 모두 새로 지은 것입니다.

목차

앞의 세 부에서 **말을 아홉 개** 익혀요. 그다음 세 부에서 문장을 **끊고 잇는** 법을 배우고, 6부에서 **리듬으로 읽다가 막히면 무엇이 막았는지** 가려요. 마지막 두 부에서 **길을 고르고 첫걸음을 걸어요**.

0부 · 낱말이 무엇을 하는가	1
0-1 어서와, 낱말로 끊는 건 처음이지?	3
0-2 어서와, 이름 부르는 말은 처음이지?	5
0-3 어서와,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는 말은 처음이지?	7
0-4 어서와, 꾸며 주는 말은 처음이지?	9
0-5 어서와, 영어 차례는 처음이지?	11
1부 · 품사 넷	14
1-1 어서와, 명사는 처음이지?	16
1-2 어서와, 동사는 처음이지?	18
1-3 어서와, 형용사는 처음이지?	20
1-4 어서와, 부사는 처음이지?	22
2부 · 자리 다섯	25
2-1 어서와, 주어는 처음이지?	27
2-2 어서와, 술어는 처음이지?	29
2-3 어서와, 목적어는 처음이지?	32
2-4 어서와, 보어는 처음이지?	34
2-5 어서와, 수식어는 처음이지?	36
3부 · 표지	41
3-1 어서와, 접속사는 처음이지?	43
3-2 어서와, 관계사는 처음이지?	46
3-3 어서와, 전치사는 처음이지?	49
3-4 어서와, 꼬리는 처음이지?	52
3-5 어서와, 빈자리는 처음이지?	55

4부 · 분절 — 덩어리 셋	59
4-1 어서와, 접주동은 처음이지?	61
4-2 어서와, 관계사절은 처음이지?	64
4-3 어서와, 부사구는 처음이지?	67
4-4 어서와, 채움은 처음이지?	70
5부 · 결합 — 층 넷	74
5-1 어서와, 1층은 처음이지?	76
5-2 어서와, 아래층은 처음이지?	79
5-3 어서와, 형용사구는 처음이지?	82
5-4 어서와, 신호어는 처음이지?	85
5-5 어서와, 방향은 처음이지?	88
6부 · 리듬과 판정	93
6-1 어서와, 막힘은 처음이지?	95
6-2 어서와, 거꾸로 끊기는 처음이지?	98
6-3 어서와, 어휘는 처음이지?	102
6-4 어서와, 섞임은 처음이지?	105
7부 · 두 갈래	109
자리 ① 같은 문장, 두 눈	111
자리 ② 수능 길	112
자리 ③ 내신 길	113
자리 ④ 어느 길이든 6부를 지나요	114
8부 · 첫걸음	116
자리 ① 수능 첫걸음 — 무엇을 말하고 있나	118
자리 ② 수능 첫걸음 — 손으로 해 봐요	120
자리 ③ 내신 첫걸음 — 자리가 빠졌나 넘치나	121
자리 ④ 내신 첫걸음 — 손으로 해 봐요	123
자리 ⑤ 두 첫걸음을 한 문장에	124

부마다 **여는 글**로 시작하고 **닫는 글**로 끝나요. 여는 글은 그 부의 첫 쪽, 닫는 글은 마지막 장 바로 뒤에 있어요.

7부와 8부에는 장 대신 **자리**가 서요. 8부에서는 문장이 **처음 보는 문장**으로 바뀌고, 답은 6절과 같이 **같은 쪽에 거꾸로** 있어요.

어서와, 영문법은 처음이지?

누가 이 책을 읽나요.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. 학교에서 배우긴 했는데 남은 게 없는 사람, 문법책을 펴면 첫 장부터 모르는 말이 쏟아져서 덮어 버린 사람, 영어만 어려운 게 아니라 **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든**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을 앞에 두고 쓴 책이에요.

문법책이 어려운 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. **한 번에 외울 말이 너무 많아서**예요. 그래서 이 책은 **쓰는 말을 아홉 개로 끝냈어요.** 아홉이 무엇인지는 지금 늘어놓지 않을게요. 0부는 **날말 없이** 시작해요 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먼저 보는 자리예요. 그다음 두 부에서 **한 장에 하나씩** 만나요. 한 장에서 새로 만나는 말은 언제나 하나예요. 그 하나가 그 장의 이름이 돼요.

그리고 이 책이 가르치는 건 딱 두 가지예요. **끊는 법**과 **잇는 법.** 긴 문장을 앞에서부터 끊어 읽고, 끊은 것들이 서로 어떻게 붙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. 그게 전부예요.

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. **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, 되돌아가지 않아요.** 영어를 뒤에서부터 우리말 차례로 뒤집어 옮기는 연습은 이 책에 없어요. 앞에서부터 읽어 나가다 막히면, 되돌아가는 대신 **끊어요.**

이 책이 안 하는 것 하나. 시제와 조동사를 다루지 않아요.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책의 두 가지가 아니라서예요. 그건 뒤에 오는 책들이 해요.

둘. 문법 규칙을 표로 늘어놓지 않아요. 다섯 가지 문장 형식도, 열두 가지 시제도 없어요.

셋. 새로 만들어 낸 이론이 없어요. 이 책은 뒤에 오는 네 권이 이미 딴고 서 있는 바닥을 **먼저 깔아 주는** 책이에요.

한 문장이 책 전체를 따라와요. 부가 올라갈 때마다 그 문장이 조금씩 길어져요. 새 문장을 읽느라 힘을 쓰지 말고, **어제 본 문장에 무엇이 붙었는지**만 보세요.

한 장에 하나씩만. 그거면 돼요.

지은이

이 책을 어떻게 쓰나요

장을 펴면 **일곱 자리**가 늘 같은 차례로 나와요. 어느 장을 펴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해요.

자리	여기서 하는 일
① 어서와	오늘 새로 만날 것 하나를 인사만 해요. 아직 아무것도 안 외워요
② 아는 것 옆에	새것을 이미 아는 것 옆에 놓고 봐요.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만 봐요
③ 빼대 문장에서	책 전체를 따라오는 그 문장에서 오늘 것을 찾아요
④ 한 조각만 바뀌	문장의 한 조각만 바뀌 보며 무엇이 달라지는지 봐요
⑤ 여기서 자주 틀려요	틀린 것과 맞는 것을 나란히 놓고, 왜 그런지까지 봐요
⑥ 손으로 해 봐요	직접 써 보는 자리예요. 답이 바로 아래에 거꾸로 있어요
⑦ 남는 한 줄	오늘 남길 한 줄.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

⑥의 답은 책을 거꾸로 돌려야 읽혀요. 잘라 낼 것도 가릴 것도 없어요. 다 쓰고 나서 책을 한 바퀴 돌리세요. 별책이 따로 없는 건 그래서예요 — 답을 찾으러 다른 책을 펼 일이 없어요.

이 책을 마치면 어디로 가나요

길이 둘로 갈려요. 어느 쪽으로 가든 **이 책의 6부를 지나야** 해요. 막혔을 때 그것이 구조 때문인지 모르는 낱말 때문인지 가리는 법이 거기 있고, 그걸 못 가리면 뒤의 어떤 책도 잘 안 들어와요.

수능을 볼 거예요

먼저 『고1 글읽기 시작』으로 글 한 편을 통째로 읽는 훈련을 해요. 그다음 『읽기의 방향』이에요.

내신이 급해요

먼저 『매듭으로 읽어내는 문장』으로 막히는 자리를 푸는 법을 익혀요. 그다음 『네 원소로 완성하는 내신 어법』이에요.

7부에서 그 두 길을 **같은 문장 하나로** 보여 줘요. 거기서 다음 책에 나올 말도 **한 번만** 보여 줄 거예요. 설명하지 않아요. 「아, 다음에 이런 말을 만나는구나」 하고 넘기면 돼요.

마지막 부에서 문장이 바뀌어요

0부부터 7부까지는 **같은 문장 하나**를 봐요. 새 문장을 매번 읽으면 문장을 읽는 데 힘을 다 써서 배울 힘이 안 남거든요. 그런데 **시험지에 나오는 문장은 처음 보는 문장**이에요. 배운 게 내 것이 되었는지는 처음 보는 문장 앞에서만 알 수 있어요.

그래서 **8부 '첫걸음'**에서 문장을 바꿔요. 새로 배울 낱말은 하나도 없어요. 바뀌는 건 문장뿐이에요.

수능 첫걸음

무엇을 말하고 있나 — 신호어에 동그라미를 치고, 오른쪽부터 떼고, 남은 1층을 읽어요.

내신 첫걸음

바르게 쓰였나 — 왼쪽부터 자리를 받고, 빠졌나 넘쳤나를 보고, 꼴이 맞나를 봐요.

두 길을 다 걸어 봐요. 고른 길만 걸어 보면 다른 눈이 무엇을 보는지 모르거든요. 거기까지 하면 이 책은 끝이에요.

0 부

낱말이 무엇을 하는가

장	이름
0-1	어서와, 낱말로 꿈는 건 처음이지?
0-2	어서와, 이름 부르는 말은 처음이지?
0-3	어서와,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는 말은 처음이지?
0-4	어서와, 꾸며 주는 말은 처음이지?
0-5	어서와, 영어 차례는 처음이지?

0부를 열며 — 아직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

문법책을 펴면 첫 쪽부터 낯선 말이 쏟아져요. 명사, 동사, 형용사, 부사, 전치사, 접속사... 여러분이 문법에서 무너진 적이 있다면, 그건 **내용이 어려워서**가 아니라 **낱말이 많아서**일 거예요.

그래서 이 책은 반대로 가요. **0부에서는 그런 이름을 하나도 쓰지 않아요.**

대신 이것만 봐요.

낱말은 저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. 그 일이 무엇인지만 볼 거예요.

이름은 1부에서 붙일 거예요. **일을 먼저 보고, 이름은 그다음에.** 사람을 먼저 만나고 이름을 나중에 아는 것과 같아요. 반대로 하면 이름만 남고 사람은 안 남아요.

그리고 0부는 **우리말로** 해요. 여러분은 우리말 낱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.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새것이 붙을 자리가 생겨요.

이 문장 하나를 0부 내내 볼 거예요.

내 친구가 어제 나를 기쁘게 했어요.

부마다 이 문장이 자라요. 새 문장을 읽느라 힘을 다 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.

0부 · 0-1

어서와, 낱말로 끊는 건 처음이지?

1 어서와

문장은 한 덩어리로 보여요. 그런데 문장은 낱말이 여럿 모인 것이예요.

그러니까 문장을 읽는 첫걸음은 하나예요 — 낱말로 끊어 보는 것.

2 아는 것 옆에

안 끊은 것 내 친구가 어제 나를 기쁘게 했어요.
 끊은 것 내 / 친구가 / 어제 / 나를 / 기쁘게 / 했어요.

같은 문장이예요. 달라진 건 하나뿐이예요 — 몇 개인지 셀 수 있게 됐다는 것.

안 끊으면 「긴 문장」이지만, 끊으면 여섯 조각이예요. 여섯은 셀 수 있고, 셀 수 있으면 하나씩 볼 수 있어요.

이 장의 낱말 문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꺼번에 보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.

3 뼈대 문장에서

내 / 친구가 / 어제 / 나를 / 기쁘게 / 했어요.
 1 2 3 4 5 6

여섯 조각. 이 여섯이 0부 내내 여러분의 재료예요.

4 한 조각만 바꿔

내 / 친구가 / 웃었어요.	세 조각
내 / 친구가 / 나를 / 도와줬어요.	네 조각
내 / 친구가 / 어제 / 나를 / 기쁘게 / 했어요.	여섯 조각

문장이 길어진 게 아니라 조각이 늘어난 거예요. 조각 하나하나는 그대로예요.

5 여기서 자주 틀려요

✕ 내친구가 / 어제나를 / 기쁘게했어요. — 붙여 놓고 끊었다고 해요

○ 내 / 친구가 / 어제 / 나를 / 기쁘게 / 했어요.

왜 끊는 자리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어요. 띄어 쓴 자리가 끊는 자리예요. 지금은 그것만 지키면 돼요.

6 손으로 해 봐요

다음 문장에 / 를 그어 낱말로 끊고, 조각이 몇 개인지 세어 보세요.

1. 동생이 우유를 쏟았어요.
2. 우리 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었어요.
3. 비가 그쳤어요.
4. 나는 어제 새 신발을 샀어요.

답 책을 거꾸로 돌려 보세요

1. 새이 / 물방울 / 떨어졌어요.
2. 리 / 꺾 / 아이러 / 이 / 운동장에서 / 뛰었어요.
3. 비 / 떨어 / 떨어졌어요.
4. 극히 / 떨어 / 해 / 릉 / 떨어졌어요.

7 남는 한 줄

문장은 낱말이 모인 것이고, 낱말은 셀 수 있어요.

다음 장에서는 그 조각 하나하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볼 거예요.

0부 · 0-2

어서와, 이름 부르는 말은 처음이지?

1 어서와

지난 장에서 문장을 여섯 조각으로 끊었어요.

이제 조각마다 물어볼 거예요 — 너는 무슨 일을 하니? 첫 번째 일부터 볼게요. 어떤 낱말은 무언가를 가리켜 이름을 불러요.

2 아는 것 옆에

이름을 부르는 말 친구 · 나 · 우유 · 운동장 · 신발 · 비
이름을 안 부르는 말 웃었어요 · 어제 · 새 · 기쁘게

무엇이 다른가요? 왼쪽 것들은 손으로 가리키거나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요. 「그게 뭔데?」에 답이 돼요. 오른쪽 것들은 가리킬 게 없어요. **웃었어요** 를 그릴 수는 없죠.

이 장의 낱말 이름을 부르는 말인지 알아보는 방법 — '그게 뭔데?'에 답이 되면 이름을 부르는 말이에요.

친구 에 「그게 뭔데?」 → **사람이요**. 답이 됐어요. **운동장** 에 「그게 뭔데?」 → **넓은 땅이요**. 답이 됐어요. **웃었어요** 에 「그게 뭔데?」 → **답할 게 없죠**.

자주 쓰는 지름길 — 「무엇이?」「무엇을?」「누가?」「누구를?」에 답이 되면 그것도 이름을 부르는 말이에요. **누가 웃었어요?** → 친구가. 다만 이 물음으로 다 잡히지는 않아요 — **운동장에서**는 「어디서?」에 답하거든요. 그래서 먼저 묻는 것은 **「그게 댜데?」** 하나예요.

3 뼈대 문장에서

내 / 친구가 / 어제 / 나를 / 기쁘게 / 했어요.
 ↑ ↑
 이름을 부르는 말 이름을 부르는 말

여섯 중 둘이에요. 친구와 나.

나도 이름을 부르는 말이에요. 사람 이름 대신 쓰는 말이지만 **하는 일이 같아요** — 누구를 가리키죠. 이 책에서는 **하는 일이 같으면 같은 무리로 봐요**.

4 한 조각만 바꿔

내 친구가 웃었어요.	이름 부르는 말: 친구
내 친구가 나를 도와줬어요.	이름 부르는 말: 친구 · 나
내 친구가 케이크를 만들었어요.	이름 부르는 말: 친구 · 케이크

셋 다 첫 자리는 친구 예요. 바뀐 건 뒤에 무엇이 오느냐뿐이에요.

5 여기서 자주 틀려요

✕ 기쁘게 도 이름을 부르는 말이겠지 — 「기쁨」이 있으니까

○ 기쁘게 는 이름을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

왜 낱말의 뜻이 아니라 그 낱말이 문장에서 하는 일을 봐야 해요. 기쁘게 에 대고 그게 뭔데? 라고 물어보세요. 답이 안 돼요. 기쁨 이라면 답이 됐을 거예요 — 그런데 문장에 있는 건 기쁘게 죠.

6 손으로 해 봐요

이름을 부르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. 물음은 하나예요 — 「그게 뭔데?」에 답이 되나요?

1. 동생이 우유를 쏟았어요.
2. 비가 그쳤어요.
3. 나는 어제 새 신발을 샀어요.
4. 선생님이 교실에서 우리를 기다렸어요.

답 책을 거꾸로 돌려 보세요

포우류 우유 「이름을 부르는 말」 교실 「이름을 부르는 말」 공 ㅈㅈ → (교실) (공) (이름을 부르는 말) '7
 ㅈㅈㅈㅈ ㅈㅈ ㅈㅈ ㅈㅈ → (공) (이름을 부르는 말) '8
 (이름을 부르는 말) '9
 (공) (이름을 부르는 말) '1

7 남는 한 줄

「그게 뭔데?」에 답이 되는 말 — 그게 첫 번째 일이에요.

다음 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를 말하는 말을 볼 거예요.

어서와,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는 말은 처음이지?

1 어서와

이름만 부르면 문장이 안 돼요.

내 친구가 나를 ...

여기서 멈추면 **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.** 뭔가가 더 있어야 해요.

2 아는 것 옆에

이름을 부르는 말 친구 · 나 · 우유 · 비
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는 말 했어요 · 웃었어요 · 쏟았어요 · 그쳤어요

무엇이 다른가요? 왼쪽은 「무엇이?」에 답해요. 오른쪽은 「그래서 어떻다고?」에 답해요.

내 친구가 → 그래서 어떻다고? → **했어요.** 이제 말이 끝났어요.

이 장의 낱말 이 말이 없으면 문장이 끝나지 않아요. 이름 부르는 말은 여럿일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, 이 말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.

그리고 이 무리 안에는 **두 얼굴**이 있어요.

움직임을 말하는 것 웃었어요 · 쏟았어요 · 만들었어요 · 뛰었어요
어떠한지 말하는 것 친절해요 · 예뻐요 · 이에요 · 있어요

내 친구가 웃었어요. 는 움직였다는 말이고 **내 친구가 친절해요.** 는 어떡하다는 말이에요. 둘 다 「그래서 어떻다고?」에 답하니까 같은 무리예요.

3 뼈대 문장에서

내 / 친구가 / 어제 / 나를 / 기쁘게 / 했어요.
↑
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는 말

딱 하나예요.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**맨 뒤에** 있어요.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— 0-5 에서 쓸 거예요.

4 한 조각만 바꿔

내 친구가 웃었어요.	→ 웃었어요	움직임
내 친구가 친절해요.	→ 친절해요	어떠하다
내 친구가 케이크를 만들었어요.	→ 만들었어요	움직임

셋 다 맨 뒤에 하나씩 있어요. 이 자리가 비면 문장이 아니에요.

5 여기서 자주 틀려요

✕ 기쁘게 가 「그래서 어떻다고?」에 답하겠지

○ 답하는 건 했어요 예요

왜 내 친구가 어제 나를 기쁘게... — 여기서 멈추면 아직 안 끝났죠? 끝을 내주는 낱말이 그 낱말이에요. 기쁘게 는 끝을 못 내요.

6 손으로 해 봐요

「그래서 어떻다고?」에 답하는 말에 밑줄을 그으세요. 그리고 움직임인지 어떠한지 적어 보세요.

1. 동생이 우유를 쏟았어요.
2. 비가 그쳤어요.
3. 우리 반 아이들이 조용해요.
4. 나는 어제 새 신발을 샀어요.

답 책을 거꾸로 돌려 보세요

움직임	정확	1
정확	정확	2
움직임	정확	3
움직임	정확	4

7 남는 한 줄

「그래서 어떻다고?」에 답하는 말이 문장을 끝내요. 문장마다 반드시 하나 있어요.

다음 장에서는 없어도 문장이 끝나는 말을 볼 거예요.

0부 · 0-4

어서와, 꾸며 주는 말은 처음이지?

1 어서와

여섯 조각 중 넷을 봤어요 — 친구 나 했어요, 그리고... 아직 셋이 남았네요. 내 어제 기쁘게.

이 셋은 뼈대가 아니에요. 그런데 왜 있을까요?

2 아는 것 옆에

뼈 봤어요 친구가 나를 기쁘게 했어요.
그대로 내 친구가 어제 나를 기쁘게 했어요.

뼈도 문장은 끝나요. 그런데 누구 친구인지, 언제 했는지가 사라졌어요.

이 장의 낱말 꾸며 주는 말은 「누구의? 언제? 어떻게?」를 붙여요. 없어도 문장은 서지만, 없으면 아는 게 줄어요.

문법책은 이런 말을 「장식」이라 부르기도 해요. 이 책은 그렇게 안 불러요. 어제 가 없으면 언제인지 모르고, 기쁘게 가 없으면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. 장식이 아니라 정보예요.

그리고 꾸며 주는 말은 자기가 꾸미는 짝이 있어요.

내 → 친구가 를 꾸며요 (누구의 친구? 내 친구)
어제 → 했어요 를 꾸며요 (언제 했어요? 어제)
기쁘게 → 했어요 를 꾸며요 (어떻게 했어요? 기쁘게)

꾸미는 짝은 대개 바로 뒤나 가까이에 있어요.

3 뼈대 문장에서

내 / 친구가 / 어제 / 나를 / 기쁘게 / 했어요.
↑ ↑ ↑
꾸며요 꾸며요 꾸며요

여섯 중 셋이 꾸며 주는 말이에요. 절반이나 돼요. 문장이 길어 보이는 까닭이 여기 있어요 — 길어지는 건 대개 꾸며 주는 말 때문이에요.

4 한 조각만 바꿔

내 친구가 나를 기쁘게 했어요. 꾸미는 말 둘 (내 · 기쁘게)
 내 친구가 어제 나를 기쁘게 했어요. 꾸미는 말 셋 (내 · 어제 · 기쁘게)
 내 친절한 친구가 나를 기쁘게 했어요. 꾸미는 말 셋 (내 · 친절한 · 기쁘게)

셋 다 빼대는 같아요 — 친구가 ... 했어요. 붙은 것만 달라요.

5 여기서 자주 틀려요

✕ 꾸며 주는 말은 안 중요하니까 건너뛰고 읽자

○ 꾸며 주는 말은 빼도 문장이 서요. 그래도 건너뛰지 않아요

왜 『빼도 문장이 선다』와 『안 중요하다』는 다른 말이에요. **어제 왔어요** 와 **내일 와요** 는 빼대가 같아요. 그런데 뜻이 정반대죠. 바뀐 건 꾸며 주는 말 하나예요.

6 손으로 해 봐요

꾸며 주는 말에 세모를 치고, **화살표로 꾸미는 짝**을 이어 보세요.

1. 동생이 우유를 몽땅 쏟았어요.
2. 큰 비가 밤새 내렸어요.
3. 나는 어제 새 신발을 샀어요.

답 책을 거꾸로 돌려 보세요

‘정해공을 팔거우 「다급쇼」 공
 문요 「정해공을 팔거우 「다급쇼」 공

정해공 ← 1
 정해공 ← 2
 정해공 ← 3

7 남는 한 줄

꾸며 주는 말은 빼도 문장이 서요. 그래도 정보는 거기 있어요.

다음 장에서는 드디어 **영어**를 봐요. 우리말과 무엇이 다른지 하나만 볼 거예요.

0부 · 0-5

어서와, 영어 차례는 처음이지?

1 어서와

지금까지 우리말로 했어요. 이제 같은 문장을 영어로 봐요.

낱말 뜻은 아직 몰라도 돼요. **딱 하나만 볼 거예요 — 차례.**

2 아는 것 옆에

우리말 내 / 친구가 / 어제 / 나를 / 기쁘게 / 했어요.
 영어 My / friend / made / me / happy / yesterday.

같은 뜻인데 차례가 달라요.

했어요 를 찾아보세요. 우리말에서는 **맨 뒤**에 있어요. **made** 를 찾아보세요. 영어에서는 **두 번째**예요.

「그래서 어떻게?»가 오는 자리

우리말	맨 뒤 — 끝까지 들어야 알아요
영어	거의 앞 — 두 번째쯤에서 알아요

이 장의 낱말 이것이 이 책 전체의 바탕이에요. 영어는 **중요한 것을 앞에** 놓아요. 그래서 **앞에서부터 차례로 읽으면** 돼요. 뒤로 갔다가 앞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.

3 뼈대 문장에서

앞에서부터 한 조각씩, **한 번도 안 돌아가고** 읽어 볼게요.

My friend	내 친구가	
made	만들었다 / 했다	← 여기서 벌써 「했다」를 알았어요
me	나를	
happy	기쁘게	
yesterday.	어제	

우리말 차례로 옮기면 「내 친구가 어제 나를 기쁘게 했어요」지만, **옮기지 않고 위처럼 읽어도 뜻이 들어와요.** 그게 이 책이 가르치는 읽기예요.

4 한 조각만 바꿔

My friend smiled.	내 친구가 / 웃었어요
My friend helped me.	내 친구가 / 도와줬어요 / 나를
My friend made a cake.	내 친구가 / 만들었어요 / 케이크를

셋 다 두 번째 자리에서 「어떻다고」가 나와요. 영어는 늘 그래요.

| a cake 의 a 는 지금은 그냥 두세요. 이 장에서 볼 것이 아니에요.

5 여기서 자주 틀려요

✕ 영어 문장은 끝까지 읽고 나서 우리말 차례로 뒤집어서 해석하자

○ 앞에서부터 차례로 읽고, 뒤집지 않아요

왜 뒤집는 습관이 붙으면 **문장이 길어질수록 못 읽어요**. 뒤집을 것이 너무 많아지거든요. 지금 문장은 여섯 조각이라 뒤집을 수 있어요. 열다섯 조각이면 못 해요. **짧을 때 안 뒤집는 버릇을 들이는 게 이 책의 목적이예요**.

6 손으로 해 봐요

영어를 **앞에서부터** 한 조각씩 우리말로 적어 보세요. 뒤집지 마세요.

1. My friend / is / kind.
2. The class / ended.
3. My friend / made / me / happy.

답 책을 거꾸로 돌려 보세요

영어를 앞에서부터 한 조각씩 우리말로 적어 보세요. 뒤집지 마세요.

내 친구가 / 웃었어요 / 3
 내 친구가 / 도와줬어요 / 2
 내 친구가 / 만들었어요 / 1

7 남는 한 줄

영어는 앞에서부터 읽어요. 돌아가지 않아요.

여기까지가 0부예요. 1부에서는 지금까지 본 일들에 이름을 붙여요.

0부를 닫으며 — 여섯 조각을 한 번에

새것은 없어요. 배운 것만으로 문장 하나를 끝까지 봐요.

내 / 친구가 / 어제 / 나를 / 기쁘게 / 했어요.

▽ • △ • △ ▣

- 이름을 부르는 말 친구 · 나
- ▣ 「그래서 어떻다고?」에 답하는 말 했어요
- △▽ 꾸며 주는 말 내 · 어제 · 기쁘게

그리고 같은 문장의 영어예요.

My friend made me happy yesterday.

▽ • ▣ • △ △

하는 일은 똑같아요. 차례만 달라요.

그런데 꾸며 주는 말 셋 가운데 **기쁘게(happy)**만 좀 달라요. **내** 와 **어제** 는 빼도 말이 되는데 **기쁘게** 는 빼면 「친구가 나를 했어요」가 돼서 말이 이상해져요. 왜 그런지는 2부에서 봐요. 지금은 셋 다 꾸며 주는 말로 묶어 두면 돼요.

0부가 남긴 것

낱말이 하는 일	셋 — 이름 부르기 · 어떻다고 말하기 · 꾸미기
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	「어떻다고」에 답하는 말 하나
영어를 읽는 방향	앞에서 뒤로. 돌아가지 않아요
새로 외운 문법 낱말	없어요

마지막 줄이 0부의 값이에요. 여러분은 문법 낱말을 하나도 안 외우고 문장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게 됐어요.

1부에서 이 셋에 이름을 붙일 거예요. **셋인데 이름은 넷이에요** — 왜 그런지도 거기서 봐요.

1부

품사 넷

장	이름
1-1	어사와, 명사는 처음이지?
1-2	어사와, 동사는 처음이지?
1-3	어사와, 형용사는 처음이지?
1-4	어사와, 부사는 처음이지?

1부를 열며 — 어서와, 품사는 처음이지?

0부에서 낱말이 하는 일 셋을 봤어요.

- ① 이름을 부른다
- ② 「그래서 어떻다고?」에 답한다
- ③ 꾸민다

이제 이름을 붙일 거예요. 낱말을 하는 일에 따라 나눈 것을 「품사」라고 해요.

그런데 하는 일은 셋인데 이름은 넷이에요. 왜냐하면 ㉠ 꾸미는 일이 둘로 갈리기 때문이에요. 0-4 끝에서 이미 눈치챘을 거예요 — 새 신발의 새와 어제 샀어요의 어제 는 둘 다 꾸미는데 꾸미는 상대가 달랐죠.

0부에서 본 일	이름
① 이름을 부른다	→ 명사
② 「어떻다고?」에 답한다	→ 동사
③ 꾸민다 ㅏ 이름 부르는 말을 꾸미면	→ 형용사
ㄴ 그 밖의 것을 꾸미면	→ 부사

이 책의 품사는 이 넷뿐이에요.

다른 문법책은 품사가 여덟이라고 해요. 이 책은 그 가운데 넷만 품사로 세워요. 나머지는 3부에서 「표지」라는 다른 이름으로 만나요. 「이건 무슨 품사지?」보다 「이 낱말이 무엇을 열고 있지?」가 훨씬 쓸모 있거든요. 지금은 넷만 기억하세요.

그리고 1부에서 볼 문장은 0-5에서 이미 만난 그 문장이예요.

My friend made me happy yesterday.

새 문장이 아니예요. 여러분은 이 문장을 이미 한 번 읽었어요.

1부 · 1-1

어서와, 명사는 처음이지?

1 어서와

0부의 「이름을 부르는 말」 기억하죠? 친구 나 우유 비.

그 무리에 이름이 있어요. 명사예요.

2 아는 것 옆에

명사 friend · book · gift · class · rain 「그게 뭔데?」에 답해요
명사 아님 made · happy · yesterday 답이 안 돼요

가르는 물음은 0부 때와 똑같아요. 이름만 새로 붙은 거예요.

이 장의 낱말 명사 — 사람·사물·일을 가리켜 부르는 낱말. **friend**(사람) · **book**(사물) · **happiness**(눈에 안 보이는 것도 부를 수 있어요)

한 가지만 새로 알아 두세요.

My friend made me happy.
 ↑
 me 도 명사예요

me 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**이름 대신 쓰는 말**이에요. **I he she it them** 도 그렇고요. 문법책은 이런 걸 따로 이름 붙여 부르지만, 이 책은 명사로 봐요. 왜냐하면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요 — 누구를 가리키죠.

이 책의 원칙 하나 — **하는 일이 같으면 같은 이름으로 불러요.** 이름을 늘리지 않아요.

3 뼈대 문장에서

My friend made me happy yesterday.
— —
명사 명사

여섯 낱말 중 둘. 0부에서 우리말로 썼을 때도 둘이었어요(친구 나).

4 한 조각만 바꿔

My friend made a cake. 명사: friend · cake
 My friend helped me. 명사: friend · me
 The class ended. 명사: class

a 와 **The** 는 지금은 그냥 두세요. 이 장에서 볼 것이 아니에요.

5 여기서 자주 틀려요

✕ **happy** 는 「행복」이니까 명사겠지

○ **happy** 는 명사가 아니에요. **happiness** 가 명사예요

왜 뜻이 비슷해도 하는 일이 달라요. **무엇이?** 라고 물어보세요. **happiness** 는 답이 되지만 **happy** 는 답이 안 돼요. 뜻으로 고르지 말고 하는 일로 고르세요. 이게 이 책 내내 쓰는 방법이에요.

6 손으로 해 봐요

명사에 동그라미 치세요. 물음은 하나예요 — 「무엇이? 누구를?」에 답이 되나요?

1. The gift was small.
2. My friend made a cake.
3. Rain stopped the game.
4. She helped me yesterday.

답 책을 거꾸로 돌려 보세요

‘She가 me를 돕는다’로 ‘yesterday’를 고르면 ‘She가 me를 돕는다’가 되나요?

- 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----|
| 1. (gift) | small | 공 | 아니에요 |
| 2. (friend) | made | 공 | 아니에요 |
| 3. (rain) | stopped | 공 | 아니에요 |
| 4. (she) | yesterday | 공 | 아니에요 |

7 남는 한 줄

명사는 이름을 부르는 낱말이에요. 이름 대신 쓰는 말도 명사로 봐요.

다음 장은 문장을 끝내 주는 낱말이에요.

1부 · 1-2

어서와, 동사는 처음이지?

1 어서와

명사만 늘어놓으면 문장이 안 돼요.

My friend ... me ...

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

0부에서 봤죠 — 「그래서 어떻다고?」에 답하는 말이 있어야 끝나요. 그 무리가 **동사**예요.

2 아는 것 옆에

명사 friend · me · cake

「무엇이? 누구를?」에 답해요

동사 made · smiled · is

「그래서 어떻다고?」에 답해요

묻는 말이 달라요. 그래서 다른 이름이에요.

이 장의 낱말 동사 — 「그래서 어떻다고?」에 답하는 낱말. 문장마다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해요. 없으면 문장이 아니에요.

동사에는 두 얼굴이 있어요. 0부에서 봤던 그 둘이에요.

움직임을 말해요

make · smile · run · help · end

어떠한지 말해요

be · become

My friend smiled. 는 움직였다는 말, **My friend is kind.** 는 어떠하다는 말. 둘 다 「어떻다고?」에 답하니까 둘 다 동사에요.

be 는 얼굴을 자주 바꿔요. 같은 낱말인데 이렇게 생겼어요.

am · is · are · was · were

My friend is kind. The gift was small. — 둘 다 **be** 예요. 모양만 다른 한 낱말이에요.

3 뼈대 문장에서

My friend made me happy yesterday.

동사

여섯 낱말 중 하나. 그리고 앞에서 두 번째예요. 0부에서 우리말은 맨 뒤에 있었죠. 영어는 앞에 있어요.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으면 일찍 알 수 있어요.

4 한 조각만 바꿔

My friend smiled.	동사: smiled
My friend is kind.	동사: is
The class ended.	동사: ended

셋 다 하나씩 있어요. 이 자리가 비면 문장이 아니에요.

5 여기서 자주 틀려요

✕ My friend kind.

○ My friend is kind.

왜 우리말로로는 「내 친구는 친절해요」로 끝나니까 **is** 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. **영어는 안 그래요.** 「어떻다고?」에 답하는 낱말이 **눈에 보이게** 있어야 해요. **kind** 는 어떤지 말해 줄 뿐이고, **문장을 끝내 주는 건 is** 예요.

6 손으로 해 봐요

동사에 밑줄을 긋고, 움직임인지 어떠한지 적어 보세요.

1. The class ended.
2. My friend is kind.
3. She helped me.
4. The gift was small.

답 책을 거꾸로 돌려 보세요

1. ended	움직임	아래로
2. is	아래로	움직임
3. helped	움직임	아래로
4. was	아래로	움직임

7 남는 한 줄

동사는 「어떻다고?」에 답해요. 문장마다 반드시 하나 있어요.

다음 장은 **없어도 문장이 서는 낱말**이에요. 0부의 「꾸며 주는 말」이 둘로 갈려요.